



숲의 주인

안명국

1

《뭐요?! 승천감독원이 쓰러졌다고?》

때없이 울리며 찾는 손전화기 호출이어서 무심히 전화를 받던 증산군산림경영소 지배인 리효일의 어성이 갑자기 높아졌다.

《억대우같은 사람도 그렇게 쓰러질수가 있소? 선미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말해주세요.》

가슴이 답답해난 효일은 옷깃을 활 열어젖히며 소리치다싶이 말했다.

《지배인동지, 의사들의 말은 너무 파로운 후파라고 합니다.》

예상외로 손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너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래서인지 효일의 목소리도 작아졌다.

《그러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지?》

《입원까지야 뭐... 그저 집에서 한 보름정도 안정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쓰러졌으니 안해의 마음이 편할리 있으랴만 그래도 그는 펍 안정된 상태였다.

산도 사람이 가꾸는데 몸을 돌보면서 일해야 저산들이 푸르러질게 아닌가고 그만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렸건만...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었다.

산림복구전투의 승패는 산림감독원들이 어떤 각오와 정신을 가지고 뛰는가에 달려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면서도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한 자기의 책임을 느끼며 효일이 물었다.

《선미 어머니, 혹시 승천동무가 그렇게 하겠다고 요구한건 아닙니까?》

대답이 없자 효일은 자기의 생각을 확신했다.

리승천이라면 능히 그럴수 있는 사람이였다.

제대군관출신인 리승천은 산림경영소적으로 완강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였다. 그는 발산리 산림감독원으로 배치된 날부터 지금껏 산에서 살다 싶어하였다.

지난 봄 어느날 효일은 실패도 료해할겸 그와 함께 월명산에 올랐다.

아름드리 참나무밑에 자리를 잡고앉아 눈아래 펼쳐진 드넓은 벌이며 농촌문화주택들을 감회깊이 내려다보던 효일이 추억깊은 어조로 말했다.

《승천동무, 밑에서 올려다봐도 숲속에 들어와봐도 우리 월명산이 주인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나야 뭐... 진짜 주인이야 지배인동지이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월명산때문에 밤을 패며 오르내리던 일들이 말입니다.》

《그래, 그땐 정말 힘이 들었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승천은 멋지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많은건 사실이지. 하지만 몸은 돌보면서 일하오. 듣자니 선미 어머니가 걱정이 많다면서... 남자라면 웅당 너자의 걱정을 가셔줄줄 알아야지.》

타이르듯 말했다.

《누가 그런 소릴 합니까?》

이렇게 묻는 승천의 눈에는 빙긋 웃음이 실려있었다. 그 웃음에는 《나보다도 지배인동지가 더한것 같던데요.》 하는 목소리가 실려있었다.

《힘이 들지?》 효일이 말머리를 돌렸다.

결에 돌아난 이름모를 풀대를 꺾어 잘근잘근 씹

으며 자기의 땀이 스민 푸른 산밭을 바라보던 승천이 모두숨을 내쉬었다.

《술직한 말로 힘이 듭니다.》

《이젠 할아버지가 됐는데 몸을 돌보면서 일하도록 하오.》

《저도 쉬고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쉴수가 있어야지요. 지배인동지도 이산이 어떤 산인지 알지 않습니까?》

효일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난 이 산에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를 심을 때마다 생각이 많아지군 합니다. 이미 월명산에 푸른 숲이 설레었다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나무를 벨출만 알았지...》

《승천동무, 우리 그 이야기 그만하지요.》

타드는 피로움을 무겁게 내쉬는 숨결속에 뿔으며 효일이 머리를 들었다.

그날의 사연을 누구보다 가슴속에 품고 한생을 바쳐오는 효일이였다.

《주머니에 담배 넣은것이 있소?》

주머니를 뒤적거리던 효일이 입을 다시며 손을 내밀었다.

《입산규정을 알면서도 그렇니까?》

《참, 그렇지. 우리가 지금 산에 올라와있지.》

맹랑한 웃음을 지으며 효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 그들은 온 산판을 돌며 산림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렇게 산을 위해 살고 산밖에 모르던 사람이 부지중 쓰러졌던것이다.

아무래도 그를 군인민병원에 후송하여 안정치료를 받게 해야겠다고 결심한 효일은 급히 회계부원을 찾았다.

《지배인동지, 회계부원동문 방금전에 기업소로 떠났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효일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지. 내가 나무종자를 가져오라고 보냈지.)

그는 손전화기로 회계부원을 찾았다.

《어데 있소?》

묻는 목소리 또한 다급했다.

《지금 기업소에 도착하는 길입니다.》

《나무종자 창고장동무가 가지고 떠나게 하고 동문 여기로 와야겠소. 빨리... 시간이 급하오.》

양묘장을 나선 효일은 무작정 오토바이를 타고오는 회계부원을 맞받아 걸었다. 발을 옮겨디딜 때마다 다리에 마쳐오는 아픔으로 몸이 휘청거렸다.

《지배인동지, 그 몸으로 어딜 간다고 그렇니까?》

성급히 따라선 양묘장사람들이 효일을 부축하며

만류했다.

《내 걱정은 말고 동무들은 자기 일들을 보오.》

효일은 그들을 뿌리치다싶이 하고 걸었다.

《가더라도 회계부원동무가 온 다음에 가십시오.》

따라오던 양묘장책임자가 하는 말이였다.

《지금 어디 그런 생각을 할 때인가?》

효일의 길쭉한 얼굴이 이지러지며 눈섭이 푸들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는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씨 고운 아녀자처럼 곱살하게 생긴 양묘장책임자가 효일의 팔을 으스러지게 껴잡으며 막아나섰다.

《허, 이것봐라. 그런 배짱은 어디서 생겼소?》

《지배인동지가 배워줬지요.》

능청스러운 웃음이 양묘장책임자의 얼굴에 비껴 흘렀다.

효일은 허거픈 웃음을 짓고말았다. 하는수없이 그에게 의지하여 나지막한 둔덕을 넘어섰다.

요란스런 동음으로 골짜기를 흔들며 회계부원이 탄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것이 보였다. 이어 그들앞에서 벗어섰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급하게 오토바이를 돌리는 회계부원의 눈가에 긴장한 빛이 떠돌았다.

《기업소로 가지요.》

불편한 다리를 옮기며 오토바이 뒤좌석에 자리를 잡은 효일이 근심이 그득 비긴 낮빛으로 서있는 양묘장책임자를 돌아보았다.

《여기 일을 부탁하오.》

몸체를 부르르 떨던 오토바이는 이내 속도를 내며 골짜기를 나는듯이 내달았다.

2

달리는 오토바이를 맞받아 습기를 머금은 바다바람이 불어왔다.

(승천동무 군인민병원에 후송하고 당분간 내가 발산리에 가있어야 한다.)

기업소를 향해 달리는 오토바이우에서 효일은 이런 결심을 굳히였다.

그는 승천감독원이 마음편히 안정치료를 받도록 하고싶었다. 그러나 자기의 결심이 당위원장한테서 좌절당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정말 안됩니다?》

효일이 갈린 목소리로 물었다.

《난 지배인동무가 발산리로 가는것을 절대로 승인하지 못하겠습니다.》

갱긋한 얼굴에 부자연스럽게 걸려있는 안경너머

로 지배인을 바라보며 당위원장이 고집스레 머리를 저었다.

《왜 승인할수 없다는겁니까?》

어째서 사람들은 내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할가 하고 생각하며 따지듯 물었다.

《지배인동무가 꼭 발산리에 가있어야 한다는 리유가 도대체 뭘니까?》

당위원장이 물었다.

효일은 머리를 저으며 후- 하고 한숨을 내뿜었다.

《〈월명산범〉이 병원에 입원하면 누구든 그 자리를 메꿔야 할게 아닙니까? 그 적임자로야 이 〈증산범〉이 제격이지요.》

군안의 인민들이 군산림경영소 지배인인 자기를 두고 《증산범》이라고 한다는것을 알고있는 효일은 일부러 긴장을 풀려는듯 웃으며 말했다.

《리유가 그럴듯 하군요. 그런 일이라면야 이 당위원장이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위원장은 여전히 정색한 표정이였다.

《당위원장동무가요?! 허...》

《왜, 난 뭐 그럴만 한 재목이 못된다는겁니까?》

《산림조성과 감독사업이라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고 그럴니까?》

나이는 당위원장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는냐는듯 한 물음이었다.

《그러니 지배인동문... 내 이래봐도 아직은 늙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력기선수마냥 두팔을 폈다굽혔다해보였다.

《안되었습니다.》

《그러니 불합격이라는거군요.》

당위원장은 난감한 미소를 지었다.

《애초에 하늘소발통같은 지배인동무의 결심을 꺾어보겠다고 하는 내가 꿈이지요. 정 그렇다면 가십시오. 그런데 승천동무가 병원으로 가겠다고 할가요? 그도 지배인동무 못지 않게 고집이 여간 아닌데.》

당위원장이 근심스레 뇌였다.

《떠밀어서라도 보내야지요.》

《뭘수록이면 얼러야지 생나무껍뚝 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효일은 당위원장의 말이 일리가 있어보였는지 머리를 끄덕였다.

《내 당위원장동무의 의견을 참작하지요.》

책상우의 서류들을 모아 간중그리는 당위원장을 보며 효일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효일에게 당위원장이 말했다.

《뭘니까? 내 당위원장동무의 부탁이라면 뭐든지 다 듣지요.》

《거기 가서도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지배인동무가 건강해야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지휘할게 아닙니까.》

《당위원장동무의 부탁대로 내 제시간에 약을 먹고 휴식도 하리다. 그러면 되겠지요?》

효일은 눈을 슴벅이며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 가겠습니까?》

서류함에 서류들을 넣고나서 효일을 따라서며 당위원장이 물었다.

《당장 가야지요.》

《지금 말입니까?》

석양이 물드는 창밖을 바라보는 당위원장의 눈빛이 흐릿해졌다.

《참, 겨울이 코앞인데 농장원들의 뺨감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위원장은 현관을 나서며 그제서야 생각이 난듯 물었다.

이것은 산림경영소에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해온 문제였다.

승천감독원이 걱정하는 문제의 하나도 이것이라는것을 잘 아는 당위원장은 지배인과 이에 대해 견해의 일치를 보고싶었다.

《농민들의 뺨감을 보장하는 문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군에 주신 유훈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해야지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승천감독원을 비롯하여 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오래전부터 산들에 아카시어나나무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크고작은 강하천들에 빨리 자라는 뽕뿌라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고있었다.

사실 강하천에 나무를 심는 사업은 산림경영소의 직능에 속하는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이 사업이야말로 산림경영소의 일이라고 효일은 주장했다.

한것은 벌방을 끼고있고 석탄과 같은 화석원료자원이 없는 증산군에서 인민들의 뺨감문제를 풀수 있는 방도는 야산을 비롯한 모든 산들에 아카시어나나무와 같이 빨리 자라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는것이였다. 그래서 봄철과 가을철에 아카시어나나무와 같이 불땀이 센 나무들에 대한 슈음베기, 줄식베기를 진행하여 인민들에게 뺨감을 보장하고있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 생산량은 너무도 보잘것 없었다.

이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있던 때 중앙양묘장에 새 품종의 빨리 자라는 뽕뿌라나무모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효일은 그달음으로 중앙양묘장으로 갔다.

빨리 자라는 뽕뿌라나무의 특성과 경제적가치를 분석하고난 효일은 한해에 최고 6메터까지 자라고 불땀이 아카시아나무에 비해 몇배나 우월한 이 나무를 군안의 크고작은 강하천들과 마을들에 심을 결심을 하였다.

이것만 성공하면 산은 산대로 푸르고 강하천들은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하며 주민지구들에 녹지를 조성하니 좋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인민들의 땀감문제까지 원만히 풀수 있으니 그야말로 실리가 나는 일이었다.

효일은 빨리 자라는 뽕뿌라나무모를 구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 나무모들이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군양묘장을 뒤덮었고 무본천을 비롯한 군안의 크고작은 하천들에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번에 무본리에서부터 빨리 자라는 뽕뿌라나무를 배어 땀감으로 공급할가 하는데 당위원장동무 생각엔 어떻습니까?》

《저도 그 나무의 불땀이 어느 정도일가 궁금했는데 한번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 실용성만 입증되면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농가들에서 저마끔 빨리 자라는 뽕뿌라나무를 심기 위해 열성을 부릴게 아닙니까.》

《그 나무의 실용성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효일이 웃었다.

《예?! 언제 말입니까?》

당위원장이 놀란 눈을 치떴다.

《무본리의 어느 한 농가에서 빨리 자라는 뽕뿌라나무를 때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몇가지밖에 안되는 나무를 가지고도 다섯식구가 먹을 밥을 잠깐 사이에 지었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가만 있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지도 않은 나무를 벌써 찍었다구 욕을 콧 했어가지요.》

《난 오히려 칭찬을 해주었는데두요. 허허.》

《모르겠습니다. 지배인동무의 성미에 정말 그랬는지...》

당위원장이 머리를 저었다.

《그 동무가 우리를 크게 도와주었는데 욕은 왜 하겠습니까.》

《도와주었다고요?》

《그렇지 않구요, 풍정리관리위원장이랑 자기네한테는 왜 빨리 자라는 뽕뿌라나무모를 주지 않는가고 보체는 리유를 그렇게도 모르겠습니까?》

《지금껏 내가 단련을 받은게 그때문이었는가?》

《그렇지 않구요.》

《헛, 허허허.》

당위원장이 허거픈 웃음을 터뜨리자 효일은 따라 웃었다.

《그 나무가 3년은 자랐으니 이번에 시범적으로 배여서 무본리농민들의 땀감을 먼저 해결해줍시다. 그러면 군내 주민들이 빨리 자라는 뽕뿌라나무의 우월성을 더 잘 알고 적극 달라붙을게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양묘장들에서도 이 나무를 키워 대대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지배인동무가 또 바빠 뛰어다녀야겠군요.》

《전 바쁘게 뛰어다닐 때 생활의 보람을 더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일은 달리기주루에 나선 사람처럼 크게 심호흡을 하였다.

3

배낭속에 사품들을 넣으며 미영은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쳤다.

눈물기가 번들거리는 안해의 얼굴을 바라보는 효일의 마음은 괴로웠다.

《당신은 또 눈물이군. 아무리 봐도 당신에겐 남들에 비해 곱절이나 큰 눈물주머니가 있는것 같아.》

고여오르는 마음을 애써 녹잡히며 효일이 우스개소리로 말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마음을 다 몰라요. 당신 몸상태만 그렇지 않다면야 제가 무엇때문에 이러겠어요. 그렇게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영영 쓰러지길라도 하면...》

남편의 걸음을 막을 길이 없는 안해의 애모쁜 심정을 토설하며 미영은 또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간다.

효일의 마음속에서도 눈물이 끓었다.

언제인가 당위원장은 그에게 료양소에 가서 한달쯤 료양치료를 받고 오라고 등을 떠밀었다. 가고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았으나 후날 가기로 하고 지금껏 미루어왔었다.

한개 군의 산림경영사업을 책임진 그에게는 할일이 너무도 많았던것이다. 그만큼 어디서나 그를 찾았고 기다렸던것이다.

이번에 발산리농장원들에게 겨울철 땀나무를 보장해주는 문제도 승천감독원이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당위원장을 설복해야 했고 지금은 사랑하는 안해를 울리고있는것이다.

난치성질병을 앓고있는 그는 자기가 어느 산, 어

느 골짜기에 쓰러져 다시는 영영 일어나지 못할수도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더욱 조바심으로 끓게 하였다.

《여보, 내 이번 일을 마무리하곤 당신 소원대로 치료를 받도록 하지.》

《당신은 지금껏 그런 달콤한 말로 저를 달랬지요.》

미영이 눈길을 들었다. 눈물이 어린 눈동자에는 애원의 빛이 그득했다.

《이번만은 정말이요, 내 약속하오.》

《은심이 아버지, 당신의 약속이 이번만은 빈말이 아니되기를 바랍니다.》

효일은 빨간 호각을 목에 걸고 잣나무앞에 서서 짙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생 숲을 가꾸고 지키는것을 락으로 여기며 살아온 어머니였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에 잠겨있느라니 산발을 울리던 그 호각소리가 들려오는듯싶어 효일은 눈을 슴벅였다.

《효일아, 너의 생은 이 푸른 숲에 뿌리를 두고 있다. 너는 순간도 이걸 잊어서는 안된다.》

효일에게 나무심는 법을 배워주며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효일이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신대로 고향땅을 푸르게 하자면 많이 배워야 한다며 대학으로 떠밀었던 어머니였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효일은 장농속에 보관해두었던 빨간 호각을 꺼냈다.

《여보, 어떻게?》 호각을 목에 걸며 효일은 병실 웃음을 머금었다.

《이 호각을 목에 걸고 어머니 저 산들을 메주밟듯 했지. 사람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고 〈숲을 지키는 범〉이라고 불렀고…》

효일의 목소리는 깊은 추억으로 젖어있었다.

《그 덕에 전 범로친의 며느리로 불리웠지요.》

《그럼 지금은 당신을 어떻게 부르오?》

《범지배인의 안해라고 하지요 뭐.》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미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목소리에는 때로는 지팽이에 몸을 의지하며 산발을 타는 남편에 대한 애석한 마음이 담겨있었다.

《여보, 내 이번 일이나 끝내고는 치료를 본격적으로 해서 다시 산관을 펼칠 나는 범이 되겠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오. 정말이요.》

《전 당신이 은심이한테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하지만 알아도 좋겠어요.》

《은심이가 뭐라고 하오?》

《뭐라긴요. 어머니가 지내 양보한다고 야단치지요 뭐.》

《그렇단 말이지.》

혼자소리로 뇌이는 효일의 눈앞에는 며칠전 저녁에 있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

《은심아, 아버지다릴 좀 주물러주겠니?》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들어온 효일은 꽃무늬도배를 한 벽체에 무거운 몸을 기대고 다리를 쭉 펴며 은심이를 불렀다.

《음, 아버지진 또…》

밥상에 퍼놓은 학습장에 머리를 들이박던 은심이 어리광을 부리듯 고운 눈을 할기죽거렸다.

《아버지, 오늘도 산에 갔됐나요?》

무릎걸음으로 다가온 은심이 아버지의 다리를 가볍게 주무르며 물었다.

《산?! 오늘은 바다에 갔됐다.》

효일은 동통에 이마살을 찌프리며 힘겹게 대답했다.

《바다?! 그럼 산림경영소가 이제 바다도 돌보나요?》

은심이의 얼굴에는 장난기어린 웃음이 남실거렸다.

《은심아, 네가 주무르는건 개미가 기어가는것 같구나.》

《아버지가 아파할것 같아 그래요.》

《일없다. 내 참을테니 짹짹 주물러주렴.》

어린 은심의 손은 작고 연약하였다.

《네 손이 약하구나. 주무르지 말고 팡팡 때려봐라.》

은심은 종주먹을 휘두르면서 아버지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만전을 부렸다.

《아버지, 바다에도 나무를 심나요?》

《바다에야 어떻게 심겠니. 바다가제방에 심으면 안될가 해서 갔됐지.》

《그래서요?》

《심을수 있겠더구나. 그런데 나무가 염기에 견뎌내겠는지 모르겠다.》

《거기엔 무슨 나무를 심게요?》

은심이 눈을 깜박거리며 물었다.

《빨리 자라는 뽕뿌라나무를 심지.》

《오, 그 나무… 그 나무는 심어도 돼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아버지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건 되는거예요.》

은심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백했다.

《하하하.》

효일은 다리에 마쳐오는 아픔도 잊고 소리내어 웃었다.

《부녀간에 무슨 재미있는 말을 하기에 그렇게 웃음소리가 높아요?》

때아니게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에 방문을 빠끔히 열며 미영이 물었다.

《엄마, 아버지 바다에다 나무를 심겠대요. 그래서 내가 된다고 했어요.》

《언제 가면 철들이 들겠는지.》

이마살을 찌프리며 미영이 끝끝 허를 찔렀다.

《누가요? 내가요?》

은심이 까만 눈섭을 삼박였다.

《누구긴 누구겠니. 바다에 나무를 심겠다는 사람이나 심어도 된다는 사람이나 갈구갈지 뭘.》… 생각에서 깨어난 효일은 안해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그럼 가겠소.》

무슨 일이나 결심하면 몸이 열쪼각이 나도 해내고야마는 성미인 남편의 앞을 막을 힘이 자기에게 더는 없다는것을 아는 미영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바라왔다.

4

월명산은 저녁어스름속에 묻혀있었다.

오석산쪽으로 완만하게 뻗어나간 산밭들에서 쇠-쇠- 하는 숲의 설레임소리가 울려왔다. 정답고 유정한 그 설레임소리는 효일의 마음속에 애뜻한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효일은 유년시절의 한때를 월명산기슭의 작은할아버지네 집에서 보내준 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여름과 겨울철의 방학기간이었다. 그 시절의 효일은 소꿉동무들과 숨기놀이를 하느라 밤이 깊어가는줄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장난군소년이었다.

농장의 휴식일이면 작은할아버지는 놀음에 미친 효일을 데리고 산에 오르곤 하였다. 월명산 정점에 올라 풍정벌너머로 바라보이는 바다를 보며 효일은 작은할아버지에게 옛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곤 하였다.

그때마다 작은할아버지는 매암산과 월명산을 비롯하여 오석산줄기에 새겨진 애국명장들의 투쟁이며 이 땅에 태를 묻고 성실한 땀을 바쳐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다. 그 시절에 들은 이야기가운데서 효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이야기는 자기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있는 가슴 뜨거운 사연이었다. …

효일은 심호흡을 하고나서 배낭을 다시 한번 추슬러며 산길에 접어들었다. 이 길을 따라 골짜기로

들어가면 승천감독원이 관리하는 양묘장이 있다.

거기에 양묘공들이 휴식하는 집이 있었다.

효일은 그 집에 려장을 풀고 산을 돌보면서 농장원들의 가을철 나무심기정형도 료해하고 겨울철 뿔나무보장사업을 조직할 생각이었다.

가을바람에 흩날린 황이 든 아카시아나무잎들이 효일의 발치에 감겨돌다가 나무모들이 자라고있는 양묘장쪽으로 날아가버린다.

산골짜기에는 어느새 땅거미가 깃들었다.

전지불을 켜들고 소나무며 창성이깎나무, 빨리자라는 뽕뿌라나무를 비롯한 나무모들을 돌아보고 난 효일은 두사람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양묘공집에 들어섰다.

누군가가 군불을 때놓았는지 방안에는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다.

배낭을 벗어놓고나서 집을 나섰다.

희뿌연 초생달빛을 밟으며 양묘장을 돌아보는데 산비탈의 소나무숲속에서 전지불이 병긋했다.

《누구예요?》 산밭을 울리는 녀인의 야멸찬 목소리였다.

효일은 걸음을 멈추었다.

《지배인이요.》

《어마나, 지배인동지!》

머리수건을 벗어주고 달려오는 녀인은 발산리 산리용반 반장인 승천감독원의 안해였다.

《오늘은 모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방금전에는 당위원장동지가 오시더니 이제 지배인동지까지…》

꾸벅 인사를 하며 하는 녀인의 말에 효일은 놀랐다.

《당위원장동무가요?》

믿어지지 않는 눈길로 녀인을 바라보았다.

《좀전에 관리위원회로 갔습니다.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

《허참, 사람두.》

지배인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인차 뒤따라선 당위원장이 고마왔다.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허전함이 감돌았다.

《승천동문 좀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물었다.

《당위원장동지와 함께…》

《그 몸으로 갔단 말이요?》

효일이 놀란 소리를 질렀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남자들이란 어쩌면 하나같이 고집불통들인지.》

녀인의 악의없는 푸념을 듣느라니 효일은 자기도 그런 사람들속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미 어머니, 어쩌겠습니까. 승천동무도 그렇

구 당위원장동무나 나도 산림복구전투를 하자니까 때로는 안사람들을 울리곤 하는거지요..》

자기를 바래우며 눈물짓던 안해의 얼굴이 떠올라 효일은 사과하듯 말했다.

《저라고 왜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너 무 속이 타서...》

여인의 목소리는 축축히 젖어있었다.

《지배인동지, 집으로 내려가십시다.》

여인이 말했다.

《당위원장동무랑 오겠는데 여기서 기다리지요.》

이렇게 말한 효일은 설레임소리 유정한 숲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선미 어머니,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 들은 다 준비됐겠지요?》

《예. 그런데 뽕뿌라나무모만은 좀...》

손에 쥐고있는 머리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여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 뽕뿌라나무모가 부족하다는 소리군요.》

증산군의 산들의 토양은 대체로 화강암과 석비래층이었다.

부식성분이 적은 이런 토양조건으로 하여 산림감독원들이나 양묘공들은 나무모의 생육조건보장이 잘되지 않아 어지간히 애를 먹고있었다.

그것이 빨리 자라는 뽕뿌라나무의 성장에도 어지간히 영향을 준것 같았다.

그는 당위원장이 여기에 온김에 모체양묘장에 있는 빨리 자라는 뽕뿌라나무모를 발산리에 먼저 공급하는 문제를 토의할 결심을 굳히었다.

그것이 월명산을 가꾸고 보호하는 길이었다.

당위원장네가 오기를 기다리며 효일은 검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초생달은 수평선너머 사라지고 골짜기는 어둠속에 묻혀있었다.

《이렇게까지 늦을리는 없는데...》

전지볼로 손목시계를 보는 효일을 보며 여인이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지배인동지, 제 마중을 가보겠습니다.》

얼굴에 초조한 빛을 띄우고 서성거리던 여인이 말했다.

《기다리느라면 오겠지요.》

《관리위원회로 가면서 선미 아버진 지배인동지랑 오신다는데 식사준비 해놓으라는 말은 했더랬습니다. 그러니 곧장 집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럼 수고스러운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인을 보내고난 효일은 전지를 켜들고 산으로 올랐다.

숲속에서 풀벌레소리와 나무사이를 날아며 우는 밤새들의 울음소리가 울려왔다.

싱긋한 숲냄새를 맡으며 숲속을 거느리니 대학을 졸업하고 산림경영소에 배치받아 월명산을 왔던 10여년전의 일이 떠올랐다.

고난의 행군을 겪은 월명산은 영성하기 이를데 없었다.

세월의 눈비에 고삭아버린 나무그루터기사이에 어린 나무들이 듦성듬성 서있는 산밭들을 돌아보는 효일의 마음은 쓰렸다.

월명산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마을사람들은 무엇을 하였던 말인가?

아픈 마음을 가까스로 달래이며 산을 오르는데 저쪽에서 나무를 찍으려는 사람과 마주쳤다.

《어보시오.》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년의 사나이를 멈춰세웠다.

마뜩지 않은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그를 향해 걸어갔다.

《나무는 왜 찍는거요?》

별 싱거운 사람을 다 보겠다는듯 한 눈초리가 효일의 몸을 훑었다.

《뽕나무를 하오.》 마음이 몹시 언짢은 통명스러운 목소리였다.

《동문 이 산에 어느만큼 나무를 심고 이 나무를 찍으려는거요?》

《여보, 내가 제 집 뒤산에 있는 나무를 심든 찍든 무슨 상관이요?》

손에 든 도끼를 내동댕이치며 중년사나이가 대들었다.

《물론 난 아직 동무를 단속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요. 하지만 사람이 량심이 있어야지 동무같은 사람들때문에 산이 벌거숭이가 돼가는걸 보지 못하오. 동무가 찍으려는 저 나무 한그루, 한그루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고 얼마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여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말이요.》

그 순간 효일은 군관으로 복무하는 아들이 함께 모여살자고 것처럼 이끌었던 고향땅을 떠나지 않고 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순간까지 나무를 심고 가꾼 작은할아버지를 생각했고 작은할아버지가 들려준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추억했다.

《나도 그런 생각을 안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자면 뽕감이 있어야 하지 않소. 그래서...》

사나이는 제잡담 속이 타는듯 주저앉으며 투덜거렸다.

생각보다는 허심한 사람이었다. 그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은 효일은 한결 누그러진 음성으로 말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무를 찍으려 했으면 열대를 심을 생각을 해야지요.》

《그 생각도 안한건 아니요. 하지만 심자고 해도 나무모가 어디 있소?》

사나이를 보내고 어린시절의 추억이 깃든 산밭들을 돌아보느라니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라고 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려왔다.

그후 산림경영소로 배치받은 효일은 월명산에 배짱이 드세면서도 완력이 있는 사람을 산림감독원으로 보내줄것을 일꾼들에게 거둬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되어 리승천이 발산리산림감독원으로 임명되었다.

발산리로 떠나면서 승천은 효일의 손을 잡고 부탁조로 말했다.

《효일동무,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산원이라면 나무가 태어나는 곳은 양묘장이라는것을 잊지 마오. 그럼 난 동물 믿겠소.》

《나무모는 내가 맡을테니 우리가 보낸 아기들이나 충실히 키워주오.》

그때부터 월명산은 다시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였다.

기쁨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던 나날들이었다.

문득 한밤중이지만 이 산정에서 어머니처럼 호각소리를 울리고싶은 충동이 불현듯 솟구쳤다. 목에 건 호각을 입에 물고 힘껏 불었다.

《호르륵—》

군잡에 들어버린 산밭을 깨우는 때아닌 호각소리에 놀란 새들이 날개를 푸닥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숲속의 잠든 새들을 놀래웠다는 미안함을 느끼며 호각소리의 긴 여운을 류다른 흥분속에 음미하는데 산아래쪽에서 자기를 찾는 목소리가 울려왔다.

《지배인동무!—》

여러개의 전지불줄기가 나무사이로 비쳐들었다. 지팽이에 불편한 다리를 의지하며 효일은 산을 툭타내렸다.

당위원장과 승천감독원, 그의 안해가 효일이쪽으로 마구 치달아올라왔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지기처럼 서로 손을 부둥켜잡았다.

《당위원장동무도 참... 이렇게 올 길이면 같이 가자고나 할것이지.》

《내가 그런 말을 비쳤다면 지배인동무가 단박에 성을 냈게요, 허허.》

당위원장이 소리내어 웃었다.

《이 지배인이 그렇게도 매정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효일은 짐짓 서운한 미소를 지었다.

《실은 지배인동물 떠나보내고서야 당위원장이 어기 앉아서 자리나 지켜서는 필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따라선겁니다.》

《갔던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효일에게는 무엇보다 이것이 궁금했다.

《농장에서는 빨리 자라는 뽕뿌라나무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모만 해결해주면 된다는 말이지요?》

효일은 들어온 주먹을 흔들며 소리쳤다.

《예. 강하천과 공지, 마을들에 그 나무만 심으면 자기네는 앞으로 산림경영소에 손을 내밀지 않고도 농장원들의 뽕감뿐 아니라 영농자재도 자체로 해결하겠다는겁니다.》

그렇단 말이지. 이것만 해결되면 농민들의 뽕감만이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말뚝을 비롯한 영농자재들을 자체로 보장할수도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 그리고 산은 자기의 푸름을 더 뽕칠 것이고.

효일은 가슴속에서 새힘이 용솟음치는것을 느꼈다.

《승천동무! 몸이 불편하다는데 어떻게?》

그제서야 승천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집사람이 소동을 피워서 그렇지 보다싶이 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승천은 두팔을 짚 벌러보이며 싱긋 웃었다.

《모르겠다, 그러다 쓰러지지 않겠는지.》

효일이 머리를 저었다.

《지배인동지가 쓰러지지 않는 한 저도 그렇게는 안될겁니다.》

《내가 쓰러진다고?... 승천동무 보기엔 내가 그렇게도 약해보이오?》

어쩐지 서운한 생각이 들어 효일이 물었다.

《누가 약해보인다고 했습니다. 강하다고 했지요. 지배인동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장군님의 유훈을 생각해야 한다,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죽을 권리도, 쓰러질 권리도 없다고 말입니다. 전 그 정신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지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듯 심장이 찌르르해왔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무엇이 두려우랴 하는 결심이 굳어졌다.

《당위원장동무, 이젠 제 혼자서 생각인데 아무래도 온실을 하나 더 건설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두동의 온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놀란 눈길로 효일을 쳐다보며 당위원장이 물었다.
《예, 빨리 자라는 뽕나무나 나무를 비롯한 나무모 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자면 결정적으로 온실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구하는 효일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흘렀다.

《해야지요. 온실이야말로 한겨울에도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산림복구전투의 사계절병기창이 아닙니까.》

당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무엇이 걱정돼서 그렇습니까?》

당위원장이 물었다.

《우린 몇해째 겨울철을 리용해서 모체양묘장도 건설하고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한 두동의 온실도 건설했습니다. 그러다나니 종업원들이...》

효일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걱정되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산림경영소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겨울은 그중 한가한 계절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그러나 효일은 그 계절이 더없이 귀중했다. 그래서 최근 몇해동안 효일은 겨울철에 박막집을 짓고 모체양묘장을 개건했고 두동의 온실도 건설하였다.

그래서 울겨울만이라도 종업원들을 충분히 휴식시키리라 결심했던 효일은 이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다.

《지배인동무, 산림복구전투는 단순히 나무나 심고 가꾸는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훈관철전이고 당정책옹위전입니다. 방금 승천감독원동무도 말하대 싶이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쓰러질 권리도 없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녀이며 생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효일의 마음을 두드리는 당위원장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효일은 결심을 가다듬듯 크게 심호흡을 하였다.

《고맙습니다, 당위원장동무. 그럼 이번에는 보다 현대적인 새로운 온실을 건설합시다.》

효일은 지금까지 온실을 건설해오면서 구상해온 것을 말했다.

《새로운 온실 말입니까?》

승천이 눈을 크게 뜨며 끼어들었다.

《이렇게면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된 온실이면서도 한쪽에서는 돼지를 기르고 밑에 양어못을 만들어 메기도 키울수 있는 그런 다기능화된 온실 말입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돼지두업으로는 양묘장을 살찌우고 양어못에서 증발되는 수분으로는

나무모를 키운다, 그야말로 일거다득이군요.》

당위원장은 다기능화된 온실의 전경이 눈앞에 안겨오는듯 환성을 질렀다.

5

《지배인동무, 이렇게 함께 월명산에 오르고보니 지배인동무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가랑잎이 덮인 산중턱에 앉아 어둠속에 묻힌 산발을 이윽히 바라보던 당위원장이 손에 쥐고있던 들국화꽃의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입을 열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여기 월명산에 오르시었던 그날이 바로 지배인동무가 태어나던 날이었다지요?》

이렇게 뇌이는 당위원장의 목소리는 못 잇을 추억으로 젖어있었다.

《예, 그날은 내 생에서 가장 귀중한 날이었지요.》

효일의 마음은 벌써 그날의 이야기에 젖어있었다.

...

나무짐을 실은 소달구지가 읍거리에 들어섰다.

생소한 읍거리의 전경을 순하게 생긴 눈을 슴벅이며 살피던 누렁소의 영각소리가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길게 울렸다.

그러자 길가에 돌아난 햇풀을 뜯으며 한가스레 따라오던 애송아지 한마리가 앙증스런 다리를 짹짹 놀리며 어미쪽으로 달려왔다.

낱은지 얼마 안되는지라 누런 털이 충실치 못한 송아지가 가까이 다가오자 누렁소는 장난치듯 말고 어미를 따라서라고 질책하듯 대가리를 두어번 흔들었다.

소달구지는 어느덧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앉은 마을에 들어섰다.

어느 한 집앞에 이르자 사나이는 석침한 목소리로 《와—》하고 소리치며 소고삐를 당겼다.

누렁소는 푸—푸— 코를 불며 더운 김을 내뿜었다.

《형님 계시우?》

찌그득— 대문을 열어젖히며 사나이가 소리쳤다.

토방앞에 쭈그리고앉아 담배연기를 훑날리던 사람이 허리를 폈다.

《적은이가 어떻게?》

《뽕나무를 가지고왔수다.》

《원, 사람두... 봄이 적실한 이런 때 뽕나무라니 웬말인가?》

《말도 마시우. 산모가 있는 방은 뜨끈뜨끈해야 산후탈을 모르고 아이도 잘 자란다면서 우리 마누

라가 어쩌나 성화를 먹이는지, 원.)》

동생은 안사람의 령이니 낸들 별수가 있냐는듯 푸념조로 뇌이며 달구지에서 나무단을 부리우기 시작했다.

《그런거야 산모를 둔 집에서 어련히 준비하지 않았으리.》

나무라는 말투였으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가득했다.

《그래도 그럴수? 후날 작은할아버지의 체면도 있어야지요. 그러니 받아두시우. 이건 마누라가 보내는 찹쌀이우다. 그리구 이건...》

마당가녀에 나무단을 무드기 쌓아놓고난 동생은 오지단지와 찹쌀자루를 토방퇴마루우에 놓았다.

《원, 별걸 다... 그런데 이 오지단진 뭔가?》

《꿀이우다.》

《꿀?! 이 귀한걸 어디서 다?》

로인은 묻는듯 한 시선으로 나이에 비해 걸쭉은 동생의 주름깊은 얼굴을 쳐다보았다.

《조카며늘애가 몸을 푸는데 자기도 기여하는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 마누라가 자강도에 사는 동생에게 부탁해서 가져온거지요.》

《원, 제수도... 우리도 이걸 구하려다 종시 구하지 못했는데.》

꿀단지들 받으며 형님이 혀를 찼다.

《그런데 말이우다. 난 오늘 꿈을 꾸것만 같수다.》

《꿈?! 무슨 꿈 말인가?》

아닌밤중에 흥두깨내미는것 같은 동생의 말에 형님은 눈을 더부러거렸다.

《글쎄 생시라고 하기엔 너무도 꿈만 같고...》

이렇게 서두를 땐 동생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내가 나무단을 실은 달구지를 끌고 마을을 나서는데 바지가랭이가 이슬에 흠뻑 젖은 어떤 젊으신분이 산에서 내려오는게 아니겠수. 그분은 나를 보자 어딜 가는가고 다정히 묻질 않겠수. 그래 읍에 사는 조카며느리의 해산이 박두해서 땀나무며 꿀이랑 가지고간다고 했지요. 하니까 그분은 꿀은 여기서 땀는가고 하시더군. 그래 난 <여기엔 꿀이 없습네다.> 하고 대답하고나서 꿀을 구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그분은 이 산에 아카시나무를 많이 심으면 꿀도 딸수 있고 땀감도 해결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며 몸시 아쉬워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나에게 어서 가서 산모에게 꿀을 주라고, 산모를 만나면 아이를 잘 키우라는 자신의 부탁도 전해달라고 하시질 않겠소.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꼭 수령님을 만나뵈온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게 아니겠수. 그러니 그제 꿈이

아니고 뭐겠소.》

《원, 성미두... 적은인 그래 그분의 성함도 익혀두지 않았단 말인가?》

형님이 성을 냈다.

《내사 그분이 어서 떠나라고 등을 떠미는 바람에 그만... 너무 격정마시우. 그분이 우리 마을로 들어가셨은즉 이제 가면 어련히 알게 되지 않으리요. 그럼 난 가보겠수다.》

《어서 가보게.》

형님이 등을 떠밀었다.

누렁소의 고삐를 잡아쥔 동생은 서둘러 읍거리를 빠져나갔다. ...

《그날 군안의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발산리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벽이슬에 옷자락을 적시시며 여기 월명산에 오르시였소. 산을 다 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산들에 아카시나무를 많이 심어 농민들의 땀감도 해결하고 벌도 많이 쳐서 거기서 나오는 꿀을 탁아소와 유치원에도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소.》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발자취를 그려보며 효일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런데 그날에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 우리 증산군산림경영부문에 남기신 간곡한 유훈으로 될 줄이야. 우린 몸이 열조각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날에 남기신 유훈을 무조건 관철해야 하오.》

어느덧 새날의 려명이 밝아오고있었다.

새들이 우짖고 잠자던 숲이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가만, 그러고보니 우리가 간밤을 이 산에서 보냈구만.》

효일이 모두를 둘러보며 웃었다.

《밤만 새웠습니까. 어제저녁식사도 넘겼는걸요.》

그들의 이야기에 심취되어있던 승천의 안해의 말이였다.

《까짓것, 어제저녁을 못한 봉창으로 아침식사는 곱배기를 합시다그러. 그래도 팬찮지요, 선미 어머니?》

당위원장님이 웃음속에 제의했다.

《왜 식사만 곱배기로 하겠습니까. 일도 곱배기로 해야지요.》

《아무렴. 그렇구말구요.》

효일의 말에 승천이 따라섰다.

와하— 하는 웃음소리가 수림속에 메아리쳤다.

그들의 웃음소리에 화답하며 숲이 따라 웃었다.

아니, 푸른 숲 설레이는 조국의 래일을 위해 생을 심고 넋을 묻는 인간들을 소리높이 노래하고있었다.